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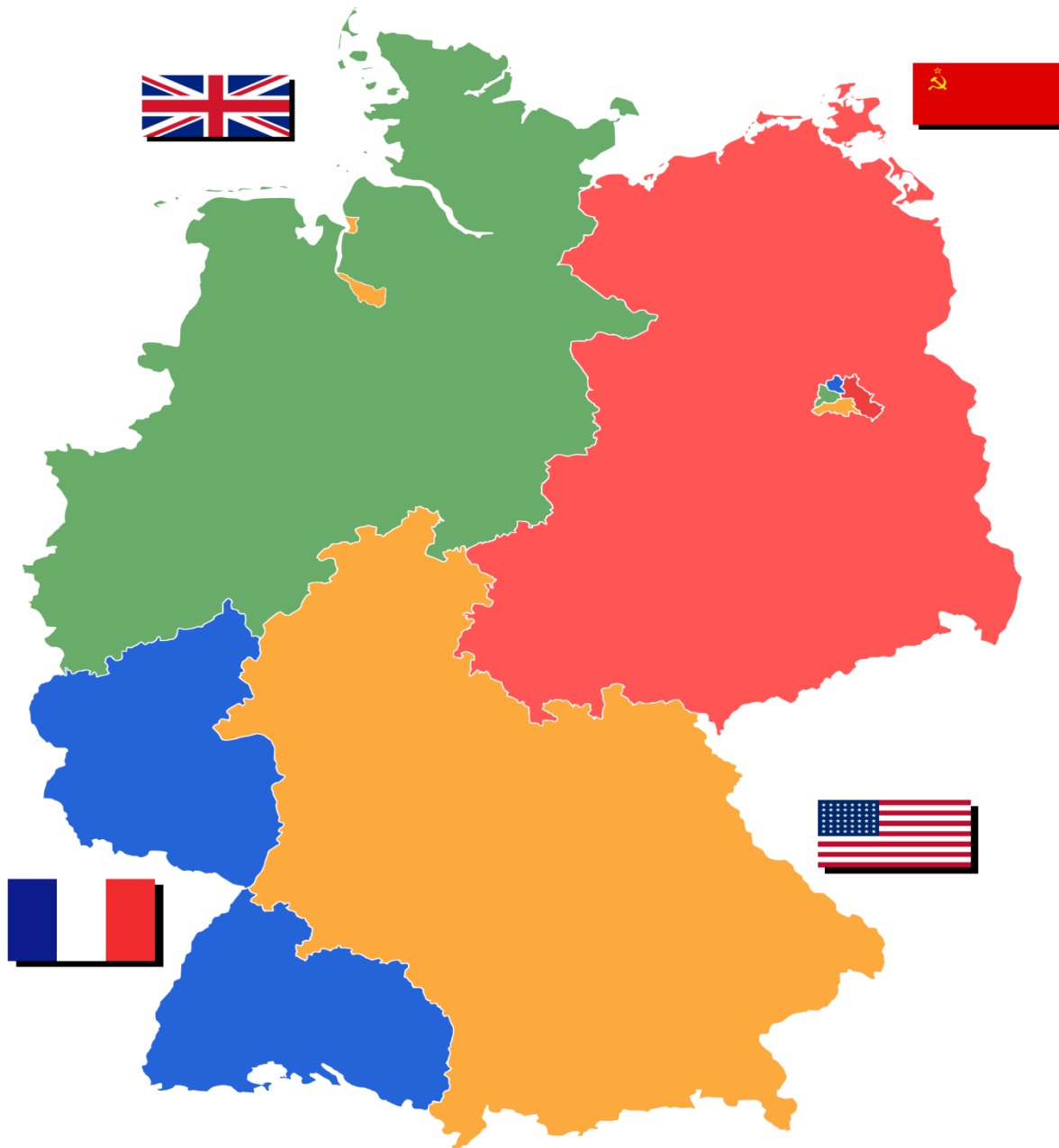
분단 - 동독

2016-1 가천대학교 독일의 이해 11주



그림(사진) 자료는 저작권 문제로 수업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전후 독일



1. 두 개의 정부 (1949-1990)



① 1949년 5월 23일 독일연방공화국(서독 정부) 수립(Bundesrepublik Deutschland -> BRD, 임시수도: 본 - 법적으로는 여전히 베를린)

1948년: 미국, 영국, 프랑스 관할 지역 경제 통합

1949년 5월 23일: 서방연합국 지역에서 독일 연방 공화국 기본법 - 서독정부 수립 - 초대 대통령: 콘라드 아데나우어

② 1949년 10월 7일 독일민주공화국(동독 정부) 수립(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 DDR, 수도: 베를린)

1955년 소련 - 동독을 정식 독립국으로 인정

2. 문학으로 보는 동독의 행보: ① 1950-61년 공산주의 국가 건설 단계

(공산주의 국가 초기)

건설 문학

(1950-1961)

주인공: 노동자

(공산주의 국가 안정)

도달문학

(1961-1971)

(공산주의 국가 위기)

공산주의 위기 속 문학

(1971-1990)

동독 문학은 초창기에 매우 중요한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반 파시즘 경향**이었다. 많은 젊은 작가들이 파시즘에 반하여 공산주의에 열광하였다. 동독 문학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일반인들에게 공산주의를 홍보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자유롭고 독자적인 문학 생산과 수용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작가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대해서 썼는지,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 들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책 서문에 밝혀야만 했다.

* 베를린 장벽 건설



서 베를린으로의 탈주자가 증가함에 따라
1961년 8월 13일을 시작으로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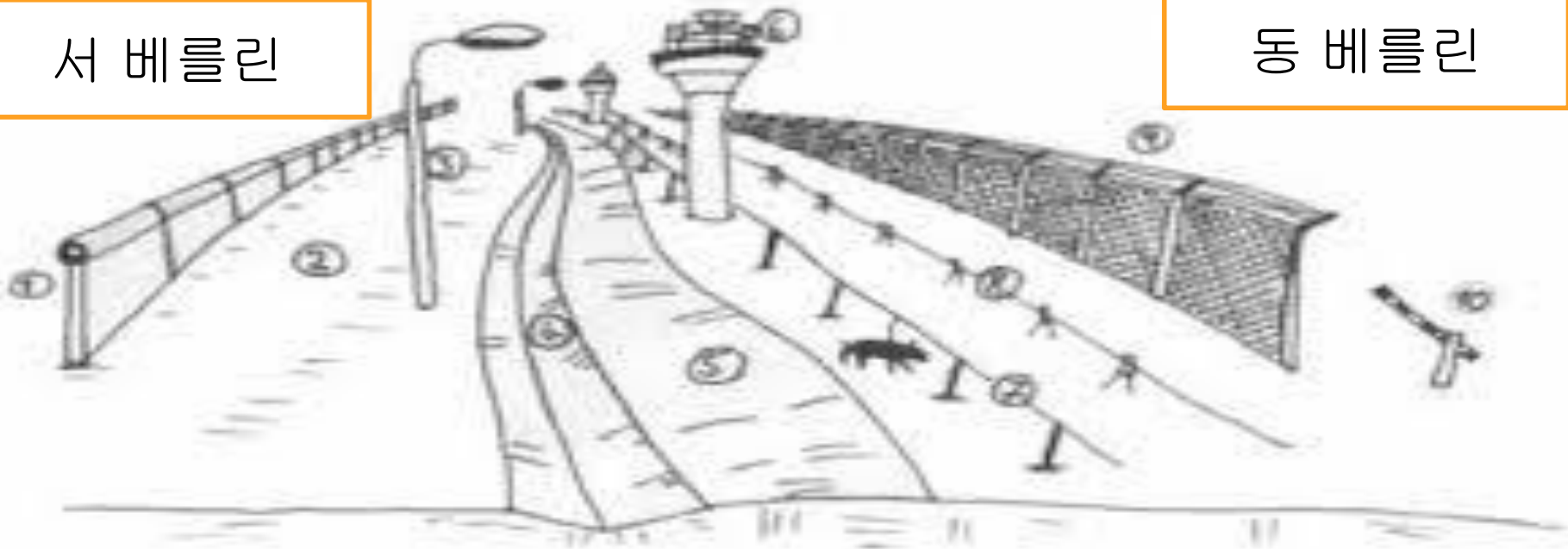
점차 전국의 동/서독
경계 지역으로 확대



* 1961년 베를린 장벽

서 베를린

동 베를린



② 1961-71년 공산주의 국가 도달 단계

(공산주의 국가)

건설 문학

(1950-1961)

주인공: 노동자

(공산주의 국가)

도달/도착 문학

(1961-1971)

공산주의 체제 위기 속 문학

(1971-1990)

동 베를린과 서 베를린 사이에 세워진 장벽은 문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동독 작가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 또한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도착 문학에서 특징적인 것은 공산주의 체제와 갈등을 겪는 젊은 영웅이 차차 공산주의로 전향하고 마침내 공산주의자로 거듭난다는 내용이다. 도착 문학의 대표적인 예로는 브리기테 라이만 Brigitte Reimann의 소설, *일상에서의 도착* *Ankunft im Alltag* (1961) 이 있다. 도착 소설은 공산주의자로서의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교육시키는 데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들, 공산주의적인 생산 방식의 발전, 개인과 사회 사이에서의 갈등 등이 다루어진다.

② 1961-71년 공산주의 국가 도달 단계: 비터펠트 노선 Bitterfelder Weg 1959, 1964

- 사회주의 국가 건설 도구로 예술 사용,
부르주아 계층만 향유하던 예술을 프롤레타리아 계급에게도 향유할 수 있게 함
으로써 예술 민주화/평준화를 달성하려 함



발터 울브리히트(1949-1971집권): „국가와 경제에서 독일 민주 공화국의 노동자 계급이 주인이다. 이제 노동자가 문화의 정점을 향하여 돌진하고 점령하여야만 한다.“ „존재하고 있는 예술과 삶의 분리“, „예술가와 민중의 괴리“를 극복하자!
-> 특히 예술가, 작가들은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노동자들이 직접 예술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펜을 들어라 동지여! 사회주의 독일 민족문화는 네가 필요하다!“

많은 예술인들(크리스티 볼프, 슈테판 하임 등)의 반대 움직임들: 반 예술의 도구화, 아마추어 예술에 대한 회의. 예) Galerie Konkret, Berlin 1960

아무나 쓰는 글/예술에 대한 반발

② 1961-71년 공산주의 국가 도달 단계: 신 경제체제 도입(1963)

건설 문학
(1950-1961)
주인공: 노동자

도착/도달 문학
(1961-1971)

경제 계획 체제, 관리 체제 -> 문화 예술 분야: 경제적인 예술 작품 생산 요구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 계층인 노동자 묘사 ->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 모범적인 계획자와 관리자가 주인공이 됨

신 경제 체제(1963):
국민경제의 효율화를 위한 경제제도의 현대적, 합리적 운용을 표방
목표: 과학적인 관리 체제를 바탕으로 기술, 경제적 효용성과 생산성을 고양해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도달하자(공산주의 생산 및 분배 체계 한계 체감)!

노동자 중심 생산 체제 -> 계획 수립자 및 지도자들의 역할 강화 -> 계획 자본주의, 신 자본주의 적 경향(이윤, 가격, 판매고, 수익성 등 중시)

③ 1971-90년 공산주의 위기 단계

(공산주의 국가)
건설문학
(1950-1961)
주인공: 노동자

(공산주의 국가)
도달문학
(1961-1971)

공산주의 위기 속 문학
(1971-1990)

공동체



공동체



개인/나

비판적 경향 대두: 신 주관주의

작가들의 저항이 본격화/가시화 되었다. 작가들은 당의 목적론적 도식에 맞는 작품 집필 거부 하였으며, 공동체에서 **나/개인**으로 관심사 이동하였다 -> 소재: 현실 속 자기 체험,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요구와의 대립 및 해결책, 개인의 행복. 양상: 모순과 대립의 조화로운 해소 부재, 균열과 좌절을 있는 그대로 묘사

작곡가 볼프 비어만은 본격적으로 동독 정부 비판하기 시작하였는데, 때문에 그의 공연은 자주 금지 당하였다. 1976년에 비어만이 쾰른에서 열린 콘서트에 참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 서독에 왔으나, 공연 후 동독 재 입국이 거부당하였다. 이 사건 이후로 많은 작가들이 공식적으로 그의 추방철회를 촉구하였으나 효과는 없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작가들이 동독을 떠나거나(사라 키르쉬, 귄터 쿠너트), 동독으로부터 추방(볼프 비어만)당하거나, 동독에 남아 있는 경우에도 동독 작가 협회로부터 제명 당하였다.

* 볼프 비어만 Wolf Biermann (1936-)

독일의 시인이며, 가수. 함부르크 출신으로 아버지는 유대인이며 공산주의자로 나치에게 체포되어 아우슈비츠에서 살해당하였다. 어머니에 의해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그는 17살 때에 홀로 동독으로 이주한다. 그러나 그는 예상과 달리 활동하는 동독 정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한다. 반체제 예술가로 적극적으로 동독 공산당 정부의 폐해를 폭로/비판 비판하던 그는 결국 1976년 서독 쾰른 지역에서의 콘서트를 위해 서독으로 넘어간 후 동독으로의 귀국이 거부당하고, 동독 시민권도 박탈당하고 만다. 여러 차례 동독 정부에 항의하고 동독으로의 귀국을 요청하였으나 끝내 거부당하였다.



* 볼프 비어만 - 프로이센의 이카루스에 관한 발라드

1

거기, 프리드리히가 알게
물 위로 걸음을 내딛는 곳,
 거기 슈프레강 위에 걸려 있는
바이덴담교. 거기 멋진
프로이센 독수리의 모습 그대 볼 수 있지
 내가 난간에 서면

그럴 때면 거기 프로이센의 이카루스가 서 있다
씻물 부어 만든 잿빛 날개를 달고
 두 팔이 하도 아파
그는 날아오르지 못한다 - 그는 추락하지도 않고
바람을 일으키지도 않고 - 녹아버리지도 않는다
 슈프레 강 위 난간에서는.



2

철조망이 서서히 자라 파고든다
살갗 속으로, 가슴과 뼈 속으로
 뇌 속으로, 잿빛 세포들 속으로 깊숙이
 [...]

3

하지만 나는 나를 이곳에 붙박으려다, 차갑게 나를
이 미운 새가 발톱으로 집어
 가장자리 밖으로 질질 끌어내 갈 때까지. [...]



볼프 비어만 - 보다 나은 시절을 기다리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씁쓸하게 하는 말을 나는 듣는다

<사회주의 - 거 멋지고 조울지

하지만 여기 이곳 우리들 머리에 씌워진 것

그건 틀린 모자야!>

많은 사람들이 두 주먹 불끈 쥐는 모습을 나는 본다

하지만 주먹은 외투 호주머니 깊숙한 속에 있다

입술 위로는 차가운 술잔 기울여 쏟아 붓기

그리고 가슴들 속에는 재.

그대 보다 나은 시절을 기다린다면
그대 용기 품고 기다린다면
날이면 날마다 강가에 나가
강물이 다 흘러버릴 때까지
기다리는 바보와 같다

[...]

보다 나은 시절을 기다리지 말라
그대들 용기 품고 기다리지 말라
날이면 날마다
강물이 다 흘러버릴 때까지
강둑에서 기다리는 바보와 같다
하지만 강물은 영원히 흐르는데
하지만 강물은 영원히 흐르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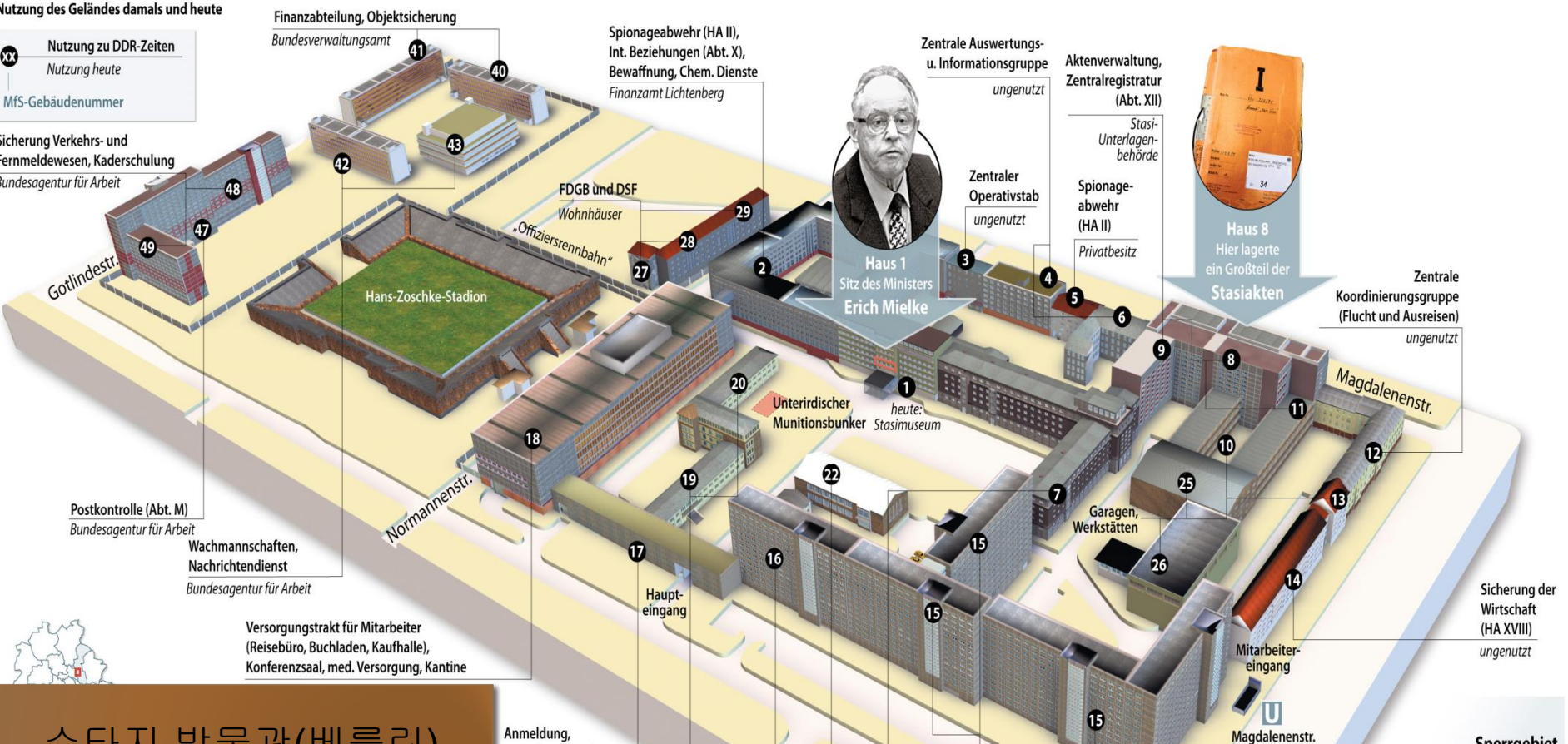
3. 동독 국가보안부(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MfS 또는 Stasi)



- 1950년 설립, 1990년 해체
- 동독의 정보 기관
- 비밀정보기관(Aufklärung), 정치비밀경찰 기관 (Abwehr), 사 법 조 사 기 관 (Strafverfolgung)의 성격을 띤 기관
- 외국첩보기관이 동독 내 활동 저지
- 다른 국가 및 비 국가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
- 당의 정책 및 국가 질서에 반하는 움직임감시 및 통제
- 동독 주민들이 해외로 이주/탈주 저지
- 외화 및 내수에 필요한 물품 조달

3. 동독 국가보안부(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MfS 또는 Stasi)

Das 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in der Normannenstraße



슈타지 박물관(베를린)



3. 동독 국가보안부(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MfS 또는 Sta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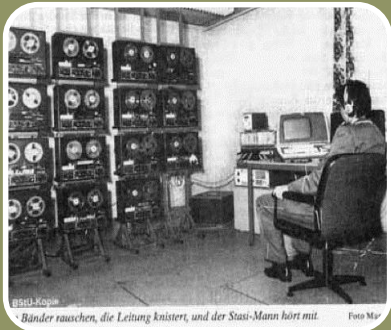
① 1950-1961년: 동독 설립 - 베를린 장벽 건설 이전 시기

- 폭력 동원.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구타, 체포, 구금/감금, 고문. ‘요주의 인물’로 낙인 찍힌 사람은 직장생활 및 은밀한 사생활까지 털어놓아야 했음. 목표는 사회주의 사회질서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 움직임들을 미리 파악하여 방지하는 것
- 문학, 예술 내지 대중 매체와 같은 문화 영역은 감시와 검열의 대상



② 1961-1976년: 베를린 장벽 건설 이후 - 동서 냉전 화해 분위기 시작 이전 시기

- 베를린 장벽 건설 이후 서독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되면서 사회주의통일당의 권력이 더욱 강화됨. 주민들이 당과 정부를 더욱 더 두려워하도록 감시 및 억압 강화
- 문화 영역까지 감시 및 통제 시작



③ 1976-1989년: 동서 냉전 체제 완화 시작 - 베를린 장벽 붕괴

- 동서 냉전 체제가 완화되면서 외국의 언론인이 동독에 들어와 취재 및 보도할 수 있게 됨. 때문의 당의 폭력적인 사회 통제 시스템이 폭로될 위험에 처하자,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을 고안해 냄 - **‘심리적 테러’**
- 시민운동가들의 강력한 저항 및 투쟁으로 인하여 문화영역에 대한 통제는 완화됨

* ‘심리적 테러’의 방식



전화감청, 감청장치설치, 비디오 감시장치 설치, 비밀 또는 공개 촬영, 수신 및 발신 서신과 우편물 전면 검사, 출입국 및 국경 왕래 인사에 대한 감시, 인민경찰에 의한 여권발급 감시, 감시대상의 인척, 친구, 방문자 감시, 비공식 요원을 통한 주거지 또는 직장 비밀 수색 -> 의심스러운 인물들 색출 -> 체포, 감금, 고문(방사선 노출, 독극물 실험) + 감시 대상자의 자살을 유도 하거나, 협박, 유괴, 살해



3. 동독 국가보안부(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MfS 또는 Stasi)



4. 영화 <타인의 삶>(2006)



타인의 삶 The Lives of Others, 2006 제작

요약 독일 | 드라마, 스릴러 | 2013.01.17 개봉 | 15세이상관람가 | 137분

감독 플로리안 헨켈 폰 도너스마르크

출연 울리히 뉘헤, 세바스티안 코치, 마르티나 게덱, 울리히 터커

줄거리 5년간 내 삶이었던... (타인의 삶) 난 그들의 삶을 훔쳤고 그들은 나의 인생을 바꿨.

누적 관객수 50,607 명 (2013.12.04,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동영상 (1건)



포토 (48건)



영화: <타인의 삶>(2006), 감독: 플로리안 헨켈 폰 도너스마르크

1. 효과적인 심문 방법을 가르치며 비슬러는 누군가가 유죄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① 고문 ② 독방에 감금 ③ 모든 걸 인정할 때까지 심문 ④ 일단 풀어준 뒤 미행

2. 거의 모든 활동을 금지 당한 예르스카는 진정한 걸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① 구태의연한 체제에 저항하는 작품 ② 대중적 인기를 얻은 작품 ③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 ④ 우리의(창작자의) 양심으로부터 나온 작품

3. 드라이만의 생일파티에 참석한 예르스카가 읽고 있던 것은 누구의 작품인가?

- ① 헤밍웨이 ② 브레히트 ③ 괴테 ④ 버나드 쇼

4. 영화 <타인의 삶>(2006)

4. 드라이만의 생일 파티에서 예르스카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에 절망하는가?

- ① 그저 먹고 마시며 즐기는 모습 ②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이 없는 모습 ③ 아무도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모습 ④ 억압적인 체제에 고통 받는 모습

5. 아내가 문화부 장관과 부적절한 관계인 것을 알게 된 드라이만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 ① 그녀를 추궁한다 ② 그녀를 미행한다 ③ 말없이 그녀를 안아 준다 ④ 집을 나간다

6. 드라이만의 타자기를 숨긴 사람은 누구인가?

- ① 드라이만의 부인 ② 예르스카 ③ 하우저 ④ 비슬러

다음 주(05/23) 3차 토론 – 속죄(영화 없음)

3차 토론: 05/16-05/21 23:59 토론방

